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융합 연구

강문희¹, 이지혜^{2*}

¹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²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onverged Study on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Communication Behavioral Scale of nurses caring for people with dementia

Moon-Hee Gang¹, Ji-Hye Lee^{2*}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Ulsa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집단비교법을 활용하여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대상자는 D시, U시 및 Y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n=67명)와 D시와 U시 일반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n=70명)이다. 본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점수가 일반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2.49$, $p=.014$) 검사-재검사 신뢰도검사를 위한 급내상관관계는 .813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측정도구는 다양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수준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평가도구임이 확인되어 치매대상자 간호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치매, 의사소통행위, 간호사, 타당도, 신뢰도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validity using group comparison method and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Communication Behavior Scale for Nurses Caring for People with Dementia(CBS-D). The subjects were nurses who have worked at elderly care facilities in D, U and Y cities($n = 67$), and nurses who have worked at general hospitals in D and U cities. The scores of the communication behaviors of nurses working in elderly care faciliti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nurses working in general hospitals($t=2.49$, $p=.014$). Th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the test-retest reliability test was .813.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CBS-D is an appropriate evaluation tool for evaluating the level of the nurse's communication behavior through various logical analyzes, and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in various ways for nursing care for people with dementia.

Key Words : Dementia, Communication Behavior, Nurse, Validity, Reliability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19 Research Fund of Ulsan College.

*Corresponding Author : Jihye Lee(jhlee6@uc.ac.kr)

Received February 7, 2020

Accepted May 20, 2020

Revised March 30, 2020

Published May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이며[1] 국내 치매 환자 수는 2015년 65만 명에서 2018년 10만 명이 증가한 7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2].

치매대상자들은 퇴행이나 감각결손의 문제 뿐 아니라 기억장애, 언어장애 및 정신심리행동증상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장애를 호소하고 있다[3]. 이러한 문제는 치매대상자와 간호사의 상호작용을 줄어든게 만들고 치매대상자의 자신감을 감소시켜[4] 치매대상자의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은 치매대상자의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고 전문직 역할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이다[5,6]. 하지만 간호제공자들은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7] 치매대상자에게 의존적이고 무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치매대상자를 통제하려는 등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그러므로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스스로 바람직한 의사소통행위를 하고 있는지 비판적 분석과 자기 검열이 요구되며[9] 적절하고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치매대상자 돌봄제공자의 의사소통 관련 측정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모두 제시한 경우가 몇 개에 불과하고[10,11] 검증개발과정에서 문항을 구성할 때 임상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아 치매대상자 간호제공자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런 가운데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측정도구[12]가 개발되었다. 이 도구는 치매대상자 간호제공자에 대한 문헌고찰과 치매대상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의 면담을 토대로 속성을 도출하였으며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가 수행되었다. 그 후 구성타당도를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수렴/판별 타당도를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준거타당도도 검증된 측정도구이다. 하지만 다양한 논리적 분석을 제시하여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측정도구 사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 구성타당도 검정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집단비교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특성을 분명히 다르게 가지고 있는 두 집단을 대상

으로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14]. 또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지를 알아보는 것으로[15] 측정도구의 구체적인 질 평가를 위한 COSMIN 체크리스트[16]에서 제시하는 도구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상과 같이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측정도구가 개발되었으나 좀 더 다양한 타당도와 신뢰도의 연구가 이루어져 그 유용성과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측정도구의 집단비교법을 이용한 타당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측정도구의 집단비교법을 이용한 타당도를 검증한다.
-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측정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 U시 및 Y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67명, D시와 U시 일반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70명이었다. CBS-D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67명 중 20명은 첫 번째 설문은 2주 후 다시 설문을 실시하였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군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주로 치매대상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 중 설문을 읽고 이해하며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동의하고 참여하기로 한 간호사이다. 일반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군은 주로 비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로서 설문을 읽고 이해하며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동의하고 참여하기로 한 간호사이다. 근무한지 3개월 미만이거나 Part time 근무를 하는 간호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분석, 중간효과크기 0.5, 검정력 .80 유의수준 .05으로 양측검정 했을 때, 집단별로 64명이 산출되었으며 설문지 수거률을 약 90%로 예상하여 각각 72명씩 총 144명이 필요하였다. 더불어 검사-재검사를 위한 표본의 크기는 이전의 연구에서 요인분석 대상자의 10~20%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17] 요인분석을 위해 문항의 5~10배 표본수가 필요하다는 근거하[18]에 92~180명의 10~20%에 해당되는 9~36명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2.3 도구평가 과정

본 연구에서는 집단비교법을 이용한 타당도 분석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2018년 9월 30일부터 2019년 2월 10일 까지 진행되었다.

2.3.1 집단비교법을 이용한 타당도 검정

집단비교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특성을 분명히 다르게 가지고 있는 두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14]. 이러한 집단비교법은 구성타당도 검정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15]. 본 연구에서는 CBS-D의 집단비교법을 위해 주로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와 그렇지 않은 간호사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두 간호사 그룹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행위 점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두 그룹에 차이가 있으면 도구의 구성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3.2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정

첫 번째 검사 2주 후 재검사에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 시 모두 직접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검사-재검사 사이 2주 동안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개인적인 문제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정된 속성을 유지하려 하였으며 두 측정 점수 간에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급내상관계수가 1은 완벽한 신뢰도를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19].

2.4 연구도구

2.4.1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행위는 Lee[12]가 개발한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측정도구 (Communication Behavior Scale of nurses caring for people with Dementia: CBS-D)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요인(대화반응관리, 관계조절, 정서표현, 이해증진),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도구의 신뢰도는 Lee와 Gang[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백분율과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집단비교법을 이용한 타당도 검정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군과 일반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군과의 의사소통행위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확인하였다.
- 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도구로 동일한 대상자에게 측정한 후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2.6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U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승인(IRB No: .1040968-A-2018-009)을 받은 후 시작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수집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 연구를 통해 어떠한 위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참여를 철회하더라도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추후 파일은 삭제되고 자료는 분쇄방법 등으로 폐기될 것이라는 점과 연구목적에 대하여 설명한 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자료를 수집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Data A	Data B	x ²	p
		n(%)			
Gender	Male	4(6.0)	2(2.9)	1.85	.066
	Female	63(94.0)	68(97.1)		
Age (year)	< 30	6(9.0)	35(50.0)	1.482	.141
	30-39	19(28.4)	22(31.4)		
	40-49	23(34.3)	10(14.3)		
	50-59	17(25.4)	3(4.3)		
	≥ 60	2(3.0)	0(0.0)		
Marriage	married	48(71.6)	29(41.4)	3.398	.001
	single	18(26.9)	41(58.6)		
	Others	1(1.5)	0(0.0)		
Religion	Protestant	19(28.4)	20(28.6)	3.99	.000
	Catholic	9(13.4)	3(4.3)		
	Buddhist	11(16.4)	1(1.4)		
	Others	0(0.0)	0(0.0)		
	None	28(41.8)	46(65.7)		
Education (degree)	Diploma	18(26.9)	8(11.4)	2.62	.010
	Bachelor	38(56.7)	53(75.7)		
	master	11(16.4)	6(8.6)		
	Doctor	0(0.0)	3(4.3)		
Position	Head nurse	10(25.4)	3(4.3)	1.853	.066
	Charge nurse	3(4.5)	9(12.9)		
	Staff nurse	50(74.6)	56(80.0)		
	Others	4(6.0)	2(2.9)		
Education experience about communication with people with dementia	Yes	33(49.3)	13(18.6)	3.99	.000
	No	34(50.7)	57(81.4)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CBS-D의 타당도와 신뢰도 평가를 위해 참여한 137명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이 중 자 A는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군의 자료이며 자 B는 일반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군의 자료이다. 분석결과, 두 집단은 종교, 결혼상태, 학력,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약 50%는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일반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80%이상은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참고).

3.2 집단비교법

집단비교법을 이용한 타당도 검정에서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행위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9, p=.014$). 하위요인 중 관계조절과 이해증진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화관리와 정서표현 측면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

로 나타났다(Table 2 참고).

Table 2. Difference in communication behavior scores between groups

Characteristics	Data A	Data B	x ²	p
	M±SD			
Communication behavior	3.60±0.38	3.44±0.39	2.49	.014
Discourse response management	4.05±0.52	4.02±0.73	0.33	.737
Interpersonal control	2.64±0.83	2.32±0.78	2.30	.022
Emotional expression	3.93±0.46	3.74±0.70	1.85	.065
Interpretability	3.60±0.38	3.44±0.39	2.49	.014

3.3 검사-재검사 신뢰도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는 .813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고).

Table 3.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

Characteristics	1ST	2ND	ICC (95% CI)
	M±SD		
Communication behavior	3.54±0.41	3.62±0.45	.813
Discourse response management	4.00±0.60	4.08±0.39	.768
Interpersonal control	2.55±0.71	2.70±0.53	.741
Emotional expression	3.89±0.50	3.90±0.54	.832
Interpretability	3.86±0.54	3.95±0.43	.774

4. 논의

본 연구는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를 측정하고자 개발된 CBS-D를 다양하게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일반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37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CBS-D는 집단비교법을 이용한 타당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집단비교법을 활용한 타당도 검증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행위 점수가 일반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행위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해 보면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무교가 많고 학력수준이 높았으며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기혼이 많고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경험의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49.3%가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일반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경우, 18.6%만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교육경험이 의사소통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행위 측면에서 두 집단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는 3.60 ± 0.38 점이었는데 이는 Lee와 Gang[19]의 연구에서 나타난 3.71 ± 0.45 점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Lee와 Gang[19]의 연구에서는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교육받은 대상자가 53.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49.3%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하위요인에서 대화반응관리와 정서표현의 부분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반응관리는 대상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고 정서표현은 지지, 공감, 안심과 관련된 부분[12]이기 때문에 치매대상자가 아닌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서도 흔하게 간호사들이 고려하는 부분이다. 반면, 관계조절과 이해증진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조절은 간호사가 치매대상자와 의사소통하면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그들을 존중하면서 친밀함을 표현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12]. 하지만 간호사는 치매대상자를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쉽게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행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해증진은 치매대상자가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간호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상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요인이다[12]. 간호사는 인지능력과 집중력이 저하됨으로 인해 일상적인 의사소통도 어려워지는 치매대상자의 의사소통 특성을 충분히 알고 보완대체의사소통 전략[12] 등을 파악해야만 하므로 이 요인 역시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행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두 집단 간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CBS-D가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행위를 측정하는 타당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관계조절과 이해증진의 점수는 다른 하위요인에 비하여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향상된 의사소통행위를 위해서는 치매 의사소통 교육내용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반복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에서 급내상관관계가 0.81~1.00 사이는 매우 높은 신뢰도(very good reliability)로 간주되는데[19] 급내상관관계가 .813으로 확인되어 CBS-D는 안정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CBS-D는 다양한 검증을 통해 측정도구 사용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CBS-D는 여러 현장에서 치매대상자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를 평가하거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치매대상자를 위한 간호의 수준이 향상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집단비교법을 활용한 타당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4개의 요인과 18문항으로 구성된 CBS-D는 구성타당도와 신뢰도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치매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의사소통행위를 측정하는 도구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개 도시에 있는 병원에서 대상자를 편의추출로 모집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과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9). Dementia management act [Online]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dementia#undefined>
- [2] Central Dementia Center. (2018). Central dementia center annual report[Online].
https://www.nid.or.kr/info/dataroom_view.aspx?bid=183
- [3] J. H. Kim, D. Y. Lee, S. J. Lee, B. Y. Kim & N. C. Kim. (2015). Predictive relationships between BPSD, ADLs and IADLs of the elders with dementia in Seoul, Kore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7(1), 1-9. <https://doi.org/10.17079/jkgn.2015.17.1.1>
- [4] E. B. Ryan. (2010). Overcoming communication predicaments in later life. Paper presented at the Hearing Care for Adults 2009: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Adult Conference*.
- [5] G. G. Jeong, Y. H. Kim, K. E. Park, E. A. Lee, J. H. Park & S. A. Lee. (2007). Current status and Policy development for social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living in Kyeonggido : Kyeonggido Family Women's research Institute.
- [6] T. Ryan, C. Gardiner, G., Bellamy, M. Gott & C. Ingleton. (2012).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the receipt of palliative care for people with dementia: the views of medical and nursing staff. *Palliat Med*, 26(7), 879-886.
<https://doi.org/10.3928/02793695-20050501-02>
- [7] S. Lee & K. H. Lee. (2018). Experience of Long-term Care Workers' Communication with Older Adults with Dementia Focused on Emotional Expr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7(3), 264-273.
- [8] K. S. WilliamsKemper & M. L. Hummert. (2005). Enhancing communication with older adults: overcoming elderspeak.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43(5), 12-16.
- [9] M. Yi & B. S. Yih. (2006). A conversation analysis of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with dementia and their profession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7), 1253-1264.
- [10] H. C. Chao, Y. P. Yang, M. C. Huang & J. J. Wang (2016).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testing of the caregiver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n patients with dementia.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42(1), 32-39.
<https://doi.org/10.3928/00989134-20151008-36>
- [11] K. N. Williams & R. E. Herman. (2011). Linking resident behavior to dementia care communication: effects of emotional tone. *Behavior therapy*, 42(1), 42-46.
<https://doi.org/10.1016/j.beth.2010.03.003>
- [12] J. Lee & M. Gang. (201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mmunication Behavior Scale for Nurses Caring for People with Dementia. *Journal Korean Academic Nursing*, 49(1), 2019.
<https://doi.org/10.4040/jkan.2019.49.1.1>
- [13] K. Lee & S. Shin. (2013). Validity of Instrument Development Research in Korean Nurs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6), 697-703.
<http://dx.doi.org/10.4040/jkan.2013.43.6.697>
- [14] I. Y. Yoo. (2005). Selection and development of a research measurement. *Nursing Exploration*, 14(1), 33-45.
- [15] B. H. Munro. (2005). Statistical methods for health care research, 1. Philadelphia :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16] E. H. Lee, C. J. Kim, E. J. Kim, H. J. Chae & S. Y. Cho. (2013). Measurement Properties of Self-report Questionnaires Published in Korean Nursing Journ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1).
- [17] P. H. Lee, L. I. Chang & U. Ravens-Sieberer. (2008).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Taiwanese version of the Kiddo-KINDL® generic children'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strument. *Quality of Life Research*, 17(4), 603-611.
- [18] J. M. Bland & D. G. Altman. (2010). Statistical methods for assessing agreement between two methods of clinical measu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7(8), 931-936.
<https://doi.org/10.1016/j.ijnurstu.2009.10.001>
- [19] J. Lee & M. Gang. (2019). Factors Influencing the Communication Behavior of nurses caring for people with Dementia: Focused on the compassionate competence and Burnou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0), 498-505.
<https://doi.org/10.5762/KAIS.2018.19.10.498>

강 문 희(Moon-Hee Gang)

[정회원]



- 1997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5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8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정신건강

· E-Mail : mhgang@cnu.ac.kr

이 지 혜(Ji-Hye Lee)

[정회원]



- 2003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의사소통

· E-Mail : jhlee6@uc.ac.kr